한국 여자 아나운서 1호 이옥경

김윤식의 인천 인물 발굴 #10

한국 여자 아나운서 1호 이옥경

第1號 아나운서 顧回史女慶玉李

三十三年前 JODK」의 最初로 마이크앞에서 放送한 李玉慶女史(55세)는 방송국개설기념일을 맞이하여 감개깊이 당시를회상하다。

李女史는 최초로 放送文化를 드날린 故 盧昌武氏(前公職追放局長)의 부인으로서 부부가합력해 放送文化의 「파이어니아」역할을 해왔다。

東京女高를 마친 李女史가 마이크앞에 서게된 것은、그때 東京放送局에 있던 故盧氏를 내조하기위한 동기에서 솔선했다고한다。

新興실업인이 화인 放送劇團·演藝에이전시까지 第一號로서 뉴우스로부터 放送은 말부시간의 放送으로 흔자도말았다。

라디오 17日

【제1방송】

HLKA ◇ 밤

0 저녁음악「슈우베르트의로자문데」
0 어린이시간 어린이신문 무엇일까요
0 의학상담실 淺田의南生 김석환
5 이주일의노래「봄맞이노래」윤용하작곡
0 뉴스해설 이덕근
0 농촌의밤 水利田담윤찾아서
0 연속방송극 「禁斷의門」 ⑨趙南史作
0 수요일밤의향연 放送音樂會 와이만 터운의세레나데와 피아노 이명학 후
0 음악의세계 北歐서곡아오는길①
0 放送小說 「연기」 郭夏信작
15 연속낭독 백공무한 의효석작
30 新民法解說 延世大 장경학
45 조용한멜로디 관·타인악단
45 내외방송 뉴스 論說 希望의燈火
【제2방송】 밤 ◇

작은放送室을무대로 女史는 말부시간의 放送으로 흔자도말았다。 放送을 마치고 나가면 운구경문이 몰려들어 복도를메우는일이 예사였고 달콤한사인을 「헬로·레디」가 적지않게 날아 들어왔다는 예피소드도 남았다고…。

一九二六年 一月十六日。 JODK」의 放送局을 처음으로 「JODK」의 呼號를 보낸날이 바로 그런데 식구도十餘名이나 되었고 男子아나운서도한 명 있었는데 뉴우스와目 하면 초창기의 고생은무 척 했으리라 짐작되고도 남는다。 아나운서生活 三四千餘의 라디오가 있었는데 남편(盧昌武)은밤 이면 차를 몰고 출아다 室이 아직도 아련하게보 이는듯하다。

金八峰氏說

KA는 國立中央放送이니까 政府 나 官에서 전하고싶은 일을우 의의있게 放送해야 할 의무가 있 터이지만、일반국민으로서 그 放送 을 듣고있을때 너무도 지나친제한 가 있지않나 하는 점이다。 이와같은 제에대하여 作家金八峰·鄭石爾氏는 각각다음과 같 이 말하고있다。

니며 라디오의 조작을가 르쳐주고 계몽에 본주하 였다고 한다。 民間放送局으로 來韓하 와있는 유비리 이는 전쟁으로 인한 영원한 이별이다。 이들 은 美大統領 트루먼公認도 一期에서 現 의 八十五

인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의 하나가 이옥경(李玉慶 1902~미상)이다. 순수 문화 예술인이라기보다는 방송인 혹은 언론인의 범주에 두는 것이 옳겠지만 '문화'의 개념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인천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아나운서인 이옥경을 소개한다.

"약 40년 전, 조선 여성으로 고등여학교를 다닌 이옥경 여사는 인천해관 관리이자 제령학교 영어 강사였던 이학인 씨의 무남독녀로 인천 최초의 일본 여학교 출신이다. 그녀는 경성방송국의 초대 여자 아나운서였다. 부군 노창성 씨는 금년에 작고했다."

이 글은 1955년에 출판된 고일(高逸) 선생의 저서『인천석금(仁川昔今)』「외국인 학교」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인천 최초의 일본 여학교는 오늘날의 인천여자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이다.

이옥경은 여학교 졸업 후 동경의 일본여자음악학교를 중퇴했다고 한다. 그녀는 워낙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였는데 거기에 일본어 실력까지 유창해 1927년 한국 최초의 여성 아나운서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오늘날 같은 공개채용이 아니라 남편 노창성(盧昌成, 1896~1955)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노창성은 조선총독부 체신국 직원으로 방송국 설립의 기술 일을 맡아하고 있었는데, 개국이 가까워 시험 방송을 하던 중 아나운서가 모두 남자여서 청취하는 시민들이 딱딱하게 느낄 것 같아 미모에다 고운 목소리를 겸비한, 거기에 일본어까지 능통한 부인 이옥경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당시 모 잡지는 "그의 빛나는 두 눈동자, 배꽃같이 하얀 살결 동그스름한 그에 얼굴, 호리호리한 몸맵시, 명랑한 목소리는 그때의 방송국 안 여러 사람들의 눈을 황홀케 한 때가 많았다."고 쓰고 있다. 이옥경의 아나운서 생활은 그리 길지는 않았고, 그 후 5남매의 어머니로서 평범한 삶을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로 알려진 노라 노는 그녀의 딸 노명자였다.

김윤식/시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